

함께 해요
설날



고흥군 동강면 죽암농장의 기축년 설

牛직하게 힘차게 ...

후두두두 후두두두...
수십마리의 황소떼가 폴발을 가로지르며, 힘차게 내달린다. 그러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, 서로 몸을 비비고 한
가로이 풀을 땎는다.
기축년 소띠 해를 입주일 앞둔 지난 20일,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죽암농장(대표 김종육·57)의 이첨은 황소떼
들의 아우성으로 시작했다. 6~12개월령의 황소들은 방목을 통해 건강을 다지면서 2년 후 700kg이 넘는 어른소
로 성장, 우시장을 훌륭하게 된다.

죽암농장의 새하는 황소떼의 도약 민물이나 힘차다. 15년 전 불과 40마리로 출발한 죽암농장은 지난해 1천여
마리에서 올해 1천200마리로 유행을 불릴 계획이다.
김종육 대표는 “연간 출하두수도 150마리에서 300마리로 늘려 판매액을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”이라며
“특히 지난해 80% 미만이었던 1등급 출현율을 90%까지 끌어올려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계획”이라고 새해설계
를 설명했다.

이를 위해 죽암농장은 중저와 사육방식·사료 등을 체계적으로 통일시킨 이를바 ‘통(三通)’ 방식을 고수하고,
비합서로를 줄이는 대신 발효사료나 청보리 등 자가사료 공급량을 크게 늘려 현우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할 계획
이다.
또 지난 2007년 무항생제 인증과 지난해 HACCP(식품위생요소증명관리기준) 인증을 획득, 소비자들의 신뢰
도를 높인 것을 발판으로 대구모 등 육식점이나 직판장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. 중간유통구조를 없애 소
비자들에게 헌우고기를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김 대표의 의지다.
김 대표는 “이와 함께 조민간 사육두수를 2천여마리로 늘려 규모화를 통해 소매가격을 내리는 방안을 고민하
고 있다”면서 “올해는 죽암농장이 제 2의 도약을 하는 원년이 될 것”이라고 흔하게 웃었다.

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죽암농장에서 사육중
인 6~12개월 된 황소들이 힘차게 누
비고 있다. 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INSIDE

12	설날 병원악국, 교통안내	15	한복 회장
13	띠풀이, 운세	16~17	남극원정대
14	설음식체험	18	설국장가
		20~21	설TV 프로그램

